

# 文정부 조각, 역대 최장기록 경신할까

### 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 장관 인선 끝내지 못한 채美 출국

### 노무현정부 3일·MB정부 18일·박근혜정부 52일만에 완료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을 끝내지 못한 채 미국으로 출국함에 따라 정부의 1기 내각 구성 시기가 역대 최장기록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무위원 중 국무총리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됐던 노무현 정부는 출범 3일째에 조각을 완료했다. 이

명박 정부는 출범 18일 만에 장관 임명을 마쳤고 박근혜 정부는 출범 52일 만에 내각 전원을 임명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두달 가까이 1기 내각이 완성되지 않았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에서 내각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음을 감안하면 기존 정부보다 조각을 끝마치는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

황이다. 역대 정부는 대통령 당선 이후 인수위원회에서 인선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진 뒤 장관 인선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해외순방, 여성성장 30% 공약, 5대 인사배제 원칙 공약 등이 인사 문제에 난관으로 작용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조각은 완료 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는 관측



바른정당 당직 인선 발표, 손맞잡은 신입 인사들 바른정당 이혜훈(왼쪽 세번째)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직 인선 발표를 마친 뒤 신입 인사들과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권오을 최고위원, 정문현 사무총장, 이 대표, 신상범 인재영입위원장, 전지명 대변인, 이종철 대변인. 당직인선으로는 사무총장에 정문현 전 의원, 수석대변인에 오신환 의원, 인재영입위원장에 신상범 전 의원, 조직강화특위위원장에 정병국 의원 등이다.

마저 나온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인선은 연달아 잡힌 한미정상회담, G20정상회의로 해외외교를 추진하면서 지연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부재 중에 인사를 하는 것도 맞지 않기 때문에 아까 일단 대통령이 방미 후에 돌아와서 그 사이에 인사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최소한 문 대통령이 미국에서 돌아오는 2일까지는 장관 후보자 발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5일에 합부르크로 출국,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한·독 정상회담도 갖는다. 정부는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 정상과도 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때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여성 장관 비율 30%도 조각을 더디게 하는 요소다. 청와대 인사 과정을 한층 복잡하게 만드는 여건인 것이다. 30% 공약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장관 후보자 지명이 이뤄지지 않은 2개 부처 중 하나는 여성 장관을 불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사검증을 한층 까다롭게 만든 것도 조각을 지연시키는 변수가 됐다. 부실 검증은 거친 인사가 또 나올 경우,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기준을 강화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가치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결국 청와대는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이후 인사추천위원회회를 가동해 인사검증의 단계를 추가했다.

이같은 이유에서 문재인 정부의 조각은 7월 중순이나 돼야 완료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기존에 지명된 후보자 중 몇명이 낙마할 경우 이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김윤호 기자

## 5명의 무소속 의원...5당 체제에서 '의석수 싸움'에 어떤 영향미칠까



이정현 서영교

인사청문회·추경·정부조직법 개편 등 산적한 국회 현안을 두고 정치권의 의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무소속 의원들의 거취에도 아목이 쏠린다. 매사간 표결마다 한 표 한 표가 아쉬운 5당 체제인 탓에 이들의 행보에도 각 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무소속 의원들이 아직까지는 별다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향후 여야의 '숫자 싸움'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을 감안하면 이들이 키를 쥐고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게 될 거란 예상에 힘이 실린다. 인사청문회 정국이 끝나더라도 과반수가 되느냐, 또 (국회혁신특별위의 안전진속처리제도 상)5분의 3인 180석을 확보하느냐 등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원내 무소속으로는 정세균 국회의장 외에 이정현(3선·전남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며 복당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다.

이정현 전 대표의 경우는 본인이 복당에 대해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전 대표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지금은 복당할 시기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해 온 바 있다.

초선인 김종훈·윤종오 의원도 향후 국회 표결 싸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들은 과거

이정현·서영교, 중심부 멀어져 있지만 꾸준히 활동

윤종오·김종훈은 연대해 추경 심사 등 적극 참여해

순천)·서영교(재선·서울 중랑구)·김종훈(초선·울산 동구)·윤종오(초선·울산 북구) 의원 등이 있다. 이 5명 중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와 서영교 의원은 모두 약재로 친정을 나온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1월 2일 탈당했다. 서 의원의 경우 지난해 7월 가족 보좌진 채용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이들은 탈당은 했지만 당장 직면한 현안인 인사청문회에서부터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장은 무소속으로서 주장에 힘이 실릴 수는 없다. 그러나 이들의 행보에 따라 여야 친정과의 교감

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복당 문제와 관련해서 서영교 의원은 "특히 지역구민들의 (복당에 대한)비판이 크다"며 복당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다만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당장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조심스런 모습을 보였다. 서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의 선대위 지역별

통합진보당 출신의 진보 인사로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무소속으로 나서 나란히 새누리당 후보들(안효대·윤두환 후보)을 상대로 승리했다. 김 의원의 경우 '정리해고 반대' 등 노동자 표를 적극 공략했고 총선에서도 현대중공업 노조의 지지를 등에 업었던 바 있다.

따라서 이들의 향후 행보에는 친여 성향이 두드러지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두 의원 모두 당장 논의 중인 추경안 심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처럼 공감대가 적은 민주당 측에서 이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구체적인 입당 제안부터 각종 표결 싸움에 힘을 보태달란 제안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일단은 민주당으로의 합류 제안 손길을 뿌리치고 있다. 윤종오 의원은 "다음 총선을 의식해 집권당에 합류하는 이들은 오래 못간다"며 "김종훈 의원과 공감대를 세워 헤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이 두 의원은 서로 연대해 '연대 진보정당 창당'을 목표로 밝힌 바 있다.

## 홍준표 "檢,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도 수사해야"

### "본질은 가고 과정만 남은 정략적 수사"

자유한국당 당권주자인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2일 "문준용 제보 조작 파문과 관련해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려면 과정뿐만 아니라 본질도 수사해야 국민들이 납득한다'고 강조했다.

홍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 수사가

승자의 잔치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특혜취업 진실 여부는 제쳐두고 폭로 과정의 위법문 제만 집중적으로 수사되는 것을 보고 본질은 가고 과정만 남은 정략적 수사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더 이상 검찰이 권력의 도

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홍 전 지사는 그러면서 "저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아들 특혜취업 문제를 제기한 바가 없다"며 "특혜취업 당시 한국 고용정보원 국정감사를 환노위원장으로 시행하면서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는 있었지만 아들 문제를 대선에 끌어들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았다"고 밝혔다.

서울=김윤호 기자



달·라·질·게 수도권 합동연설회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시일로 340번안길 5

Together 광산구